

---

# 2020년 제36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0. 8. 28. ~ 9. 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특별생방송, 코로나19 위기 상황, 의사 파업 어떻게 봐야하나		
방송일자	2020. 8. 28.	시청률	0.038

## 【총 평】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 파행으로 빚어진 의사집단 파업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시간으로 코로나19 위기 시국에 왜 의사들은 집단 시위 및 집단 휴진·파업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해결책을 고민해보았다.

특히, 문제의 발단과 이전부터 있어온 갈등의 양상을 사실위주로 다루어 판단의 근거를 삼게 해 주었고, 다른 매체에서는 잘 다루지 않던 의사들의 위계질서 문제나 의료계 내부의 이견도 들어볼 수 있었다. 시청자들은 의사협회 집단휴진으로 인해 현장 의료공백이 현실화 된 위기상황을 지켜보면서, 프로그램 시청 내내 의사들의 치킨게임을 펼치는 듯 그들의 위험성과 이기주의를 엿보는 듯해 분통을 일으켰다.

최대환 진행자의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진행이 돋보였고, 적재적소의 설명과 비유, 문제의 사안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돌파하려는 의지로 신뢰감을 형성하며, 토론을 이끌었다.

##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 의사파업’은 뜨거운 감자로 우리 사회의 집단이기주의 및 공동체 의식 결여, 전형적인 국민불모형 정부정책 항거로 국민 분열과 갈등의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의사파업으로 의료공백 피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번 파업의 문제가 된 공공의료 정책의 실체를 밝히고 의협이 요구하는 바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내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대한간호협회측의 의견과 지역 의료계의 다른 목소리들을 함께 다루면서 현재 의사들의 파업이 집단 이기주의로서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의사협회가 파업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세 가지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들의 팩트를 체크하고 본질을 분석했다. 또, 보수 언론과 지역 언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의식을 강조했다. 이밖에 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전하고 사랑제일교회측의 책임의식을 강조했으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관한 정보까지 두루 살펴봤다. 전체적으로 ‘쟁점토론’과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합쳐진 느낌인데 그 조합이 굉장히 참신하고 자연스러웠다.

특히,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현 시점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 아니고 예전부터 논의되어 온 내용임을 알려주어 사정을 모르는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을 해소해 주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와 전화 연결을 해서 혼란스러운 의료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전해주고 의사들의 파업에 따른 간호 인력의 업무 과중과 각종 위험성을 언급했다. 또, 나이팅게일 선서에 따라 환자결을 지킨다는 언급은 의사들의 히포크라스 선서와 비교되면서 의료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전문가로서 윤리적 책임의식"임을 전달했다. 이번 이슈로 파업에 참여한 의사협회 모든 의사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새기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하는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였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0. 8. 29.	시청률	0.012

## 【총 평】

<영상기록! 진실과 화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 문경 석달 사건’은 지금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재여서 충격을 더했다.

문경 석달 사건은 공비토벌에 나선 국군 2개 소대가 문경 석달 마을에 들어와 어린이, 노인, 부녀자 등 주민 86명을 무자비하게 집단 총살한 참혹한 사건으로 수십 년간 은폐되고 왜곡된 사건이다. 주민과 언론인, 유족회의 진실규명 요구에 이어 결국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국가의 사과, 피해구제 화해조치, 재발방지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진실 그리고 화해’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데 희생시키는 일은 말도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절규하는 생존자의 인터뷰가 깊은 울림을 남겼다.

## 【구성 및 내용】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 문경 석달 사건’은 1949년 문경 석달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학살사건을 다루었다. 피해자들의 절절한 체험담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리얼하게 전했고, 참혹한 기억을 안고 있는 마을 주민과 후손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 다큐였다.

1949년 크리스마스 이브, 문경의 한 마을은 잿더미로 변하고 마을사람들은 사살되었다. 어린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간 문경 석달 사건의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해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었고, 11살의 나이에 학살 사건을 겪었던 할머니의 체험담을 앞부분에 배치했는데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다.

1949년 문경 상선암에서 국군 2개 소대가 모여 문경 석달 마을사람들을 학살했다고 한다. 전체 희생자 수는 86명으로 마을 전체는 초토화 되었다. 당시 24가구 127명이 살았던 석달 마을은 사라지고 이제 위령비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마을에 도착한 국군 소대는 마을 사람들의 환대가 좋지 않아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한다.

당시 사건 이후 국방부 장관이 방문하여 마을 전체에게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전달하고 이후 문경 석달 사건은 군과 경찰 등에 의해 철저하게 가려졌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왜곡되고 은폐된 문경 석달 사건은 아직까지 공비들의 총살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마을 유족 대표들이 진정서를 정부당국에 제출하는 등 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5.16 군사정변 이후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졌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4년부터 문경 석당 유족회를 결성하고 합동 위령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2007년 진실화해위는 문경 석달 사건을 진실규명하며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건 관련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 위령 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8. 29.	시청률	0.043

### 【총 평】

충남 서산시의 개선된 업무를 소개 한 ‘사업비 500만 원 내 소규모 민원 신속 해결’과 경기도 광명시의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인해 빚어진 사생활 침해를 공무원의 지혜로 일궈낸 ‘사생활 침해 민원 해결’을 소개하였다.

특히, 지자체의 유비무환과 공무원들의 지혜로움이 잘 드러났고,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소규모 생활불편사업’ 처리와 ‘동네 공원에 대나무 식재’는 주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준 내용으로 마음만 있으면 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 【구성 및 내용】

충남 서산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 민원 처리 절차를 개설하고 여러 가지 생활불편사업을 해결해준 사례와 경기도 광명시의 어린이 놀이터 조성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대나무 식재를 이용한 민원 해결 현장을 소개했다.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 즉각 처리’는 충남 서산시의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졌음을 소개했다. 서산시는 사업비 500만원 이내의 민원인 마을 도로 노후 보수, 수로 정비, 사고 위험 지역 보수 등을 즉각 처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반 사업은 평균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은 1개월 미만에 예산을 집행하는 특징점을 소개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효율성과 민첩성을 잘 보여주어 공무원 이미지 개선에 고무적인 아이템이었다. 특히 서산시 부석면 송시1리 민원은 장마와 태풍이 오기 전에 민원이 해결돼 재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민원 해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실제 사례 위주의 소개와 사업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다.

경기도 광명시의 ‘우리 토래 어린이 공원’ 관련 민원으로 “동네 공원에 대나무 식재로 사생활 침해 민원 해결”은 주민을 이해하려고 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과학을 아는 지혜로운 시청 공무원의 모습이 잘 비춰졌다. 민원 처리 과정에 앞서 놀이터의 지리적 특성을 언급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한 점을 공개해 신빙성이 높았다. 또, 여러 나무 중에서도 유독 대나무를 심기로 결정한 이유에 관해서도 대나무의 기능을 예로 들어 설명해 지자체의 결정을 돋보이게 했고, 대나무들이 자라면 사생활 보호와 경관 등 그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창의성이 돋보이는 해결책으로 여겨졌다.

### 【참고 사항】

04:47 ‘서산시, 소규모 생활불편 사업’의 송산1리 마을이장 인터뷰 자막에서 “세월이 가 보니까”은 “세월이 가다 보니까”의 오타임.

프로그램	법보다 법		
방송일자	2020. 8. 30.	시청률	0.099

### 【총 평】

54일간의 장기간 폭우로 인해 벌어진 침수 피해 관련한 보상과 분쟁 문제를 다룬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침수 피해 보상”을 방송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재난을 겪었을 때의 국가적 지원 및 보험가입 유무에 따라 복구지원 비용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국가지원 부분을 각 농가별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는데, 각 농가의 보험가입 유무가 중요한 부분이었다.

전남 구례군 양정마을 축사 피해 보상, 충북 음성군의 과수원 침수로 농작물 피해 보상,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보상 방법, 주택 침수 피해 임대인 보상권 등이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집중호우 등 침수 피해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는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준 것이 좋았다.

### 【구성 및 내용】

침수 피해에 따른 법률 상식을 총정리한 듯해 보였다. 농촌의 침수 피해는 물론이고 도시에서 주택 침수에 따른 세입자의 피해사례를 소개하고 사례에 따른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줘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많은 시청자들도 공감할만한 기획이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았다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면 재난 및 안전관리 지원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주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지원을 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종 뉴스 보도를 시작으로 수해 피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뒤 첫 사례로 전남 구례군의 피해 지역 이장님과 영상 통화를 해서 피해의 실태를 파악했다. 주로 축산 피해에 대해 다루었는데 피해 금액과 보상 금액을 화면 옆쪽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게스트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는 과수원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의 이야기였는데,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보상의 차이를 설명해주었다. 세 번째는 주택 침수에 대한 내용과 세입자로서 피해에 대한 책임을 호소해주었는데 주택 침수 피해에 있어서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시청자들도 많을 것 같아 공감을 샀을 것 같다. 특히,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잘 설명되었다.

임차인의 주택침수 피해에 대해 임대인은 도배, 장판 수리 및 전기, 보일러 교체 등 집안 수리를 해주어야 하는 의무와 임차인이 계약이 만료가 되지 않았어도 이사를 원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다가구 주택 3층 세입자의 베란다 파손으로 1층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을 파손하게 될 경우 3층에 사는 세입자에게 일정 책임이 있지만 1층에 주차한 차주인도 태풍과 폭우로 인한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안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해 주었다.

프로그램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		
방송일자	2020. 8. 30.	시청률	0.000

### 【총 평】

<슬기로운 취준생활 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와 취업난이 겹친 상황에서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 슬기롭고 실질적인 노하우를 제공했다. AI 분야는 VR·AR과 더불어 시대를 이끄는 트렌드라는 점에서 방송 소재를 AI 기획자로 한 것은 좋은 선택이었다.

특히, 첫 번째 일자리센터 소개는 이스트소프트 대표가 출연해 AI기획 분야에 고졸자를 채용하겠다는 구인 발표로 고교생 채용 기업이 없어 고교졸업자들의 취업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한줄기 빛이 되었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교육부에서도 고졸채용, 맞춤형 인재 양성, 취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고졸자 취업활성화 지원 메시지는 의미가 컸다.

‘AI기획자의 하루’를 통해 어떤 분야이고 합격이후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는지를 보여준 부분도 취준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고, 취준생 2명이 실전 100% 면접방식으로 모의화상면접을 치르고 그 관전평을 통해 취준생들에게 간접적인 실전 경험을 전달하고 해결책을 제공한 구성이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 층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시기적으로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악화된 상태를 감안하면 더욱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AI 기획자에 대해서 이스트소프트의 AI 기획자와 기업대표가 출연하여 AI 기획자라는 직종에 대한 전망, 그리고 취업 선배의 취업 비법과 실제 업무 모습, 기업 대표의 화상면접 실전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AI 기획자의 직장에서의 하루를 소개한 부분과 화상면접은 리얼리티가 잘 살아났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인공지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알파고의 등장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다. AI 관련 직종은 연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직종 중 하나이다. AI 기획자는 단순히 기획만으로 끝나지 않고 기획한 해당 앱이 실제 사용되는 매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개발자와의 미팅을 통해 현장의견을 전달한다.

AI기획자 취업선배가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후배 취준생들에게 조언했는데, 원하는 직군의 선배에게 비법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원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며 경쟁사의 서비스를 확인하여 해당 분야의 깊이 있는 내용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작은 프로젝트 경험이 큰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통해 본인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면접관의 눈에 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실무경험을 강조했다. 또, 면접에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고,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요점 위주로 답변해야 한다고 알려주어 몰입도를 높였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9. 1.	시청률	0.034

## 【총 평】

국민리포트는 '정책 홍보'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주제로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국민기자들의 눈으로 본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었다.

경기도 군포시의 클로버스토어, 전라남도 해남군의 어르신을 위한 100원 택시, 서울 용산구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돌봄, 부산 진구의 청년 주도 복합문화공간 등이 소개됐다. 특히, 치매 예방 로봇은 매우 흥미로웠고,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나누는 클로버 스토어는 그 취지가 매우 좋았다.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하는 내용이 중복되지 않았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소식이라 더욱 돋보였다.

## 【구성 및 내용】

### ■ “나눔 실천 착한 가게 ... 군포 ‘클로버스토어’”

군포시에서 음식은 물론 재능 기부를 통해 이웃들을 돕고 사는 소상공인들의 모임인 클로버스토어의 활동을 소개했다. 소외된 이웃을 돕는 지역의 착한 가게들로 군포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22개 가게, 다양한 업종이 참여하는 현장과 아름다운 나눔 실천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사회복지관장의 인터뷰를 통해 이 클로버 스토어의 취지와 활동 내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다양한 나눔 방식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 ■ “오지 마을 다니는 ‘100원 택시’ 어르신들 호응”

전라남도 오지마을 해남군 조산마을과 분토마을의 ‘100원 택시’를 취재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교통 오지 주민들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행하는 일은 진작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렇지만, 어르신이 택시를 부르는 모습부터 택시로 읍내까지 이동해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동행 취재해 편의성이 있는지 보여준 것은 꽤 의미가 있었다. 해남군은 6년간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5만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크게 강조할만한 내용이었다.

### ■ “인공지능으로 치매 예방 나선다”

AI 기술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내용으로 용산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보인 치매 예방 로봇과 AI 기술을 소개했다. AI와 ICT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치매 예방도 AI가 담당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 ■ “지역 청년들, 복합문화공간 이끌어간다”

부산 진구의 청년 주도 복합문화공간은 시대적으로 어렵고 힘든 청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율적인 운영 방식과 청년들이 느끼는 만족감을 소개했는데, 코로나19로 잠시 폐쇄 중이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9. 1.	시청률	0.000

### 【총 평】

누진 확진자 2만명이 넘어서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수도권에서는 밤9시 '코로나 통금'으로 음식점은 9시 이후에 영업을 금지하며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고, 인적도 끊겼다.

방역과 경제에 초경고등이 켜진 긴급 상황에서 톡톡 사이다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역·경제 총력 대응 방안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조치사항부터 3단계로 격상 시의 국내 경제충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어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었다. 특히, 강화된 거리두기가 이 시점에서 왜 필요한지 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 설득력을 높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경제충격을 알려 자율방역을 강조했다.

### 【구성 및 내용】

<톡톡사이다경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역·경제 총력 대응방안'은 코로나 재확산 원인과 우려 등 현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도 살리고 경제도 타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하고 3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벌어질 경제적 충격에 대해 경고적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방역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추경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관점을 전한 시간이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내용상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집합, 모임, 행사, 스포츠행사, 공공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조치가 이뤄졌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9시 이후에는 영업을 금지하며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있고, 교회의 경우에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있다. 특히, 방역이 3단계로 넘어가면 소비와 생산의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생태계의 연결망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줘야한다는 지적도 의미있게 다가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할 경우, 생산, 소비, 성장을 등 전반적 타격이 불가피함을 알려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거리두기 3단계로 가면 우리 경제가 올스톱 된다, 연말까지는 백신이 나와야 한다"는 절박감을 잘 전달했다. 이미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

4차 추경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정부가 적시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복지가 아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접근해야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눈길을 끌었는데 올바른 지적이었다.

S&NEWS는 독일의 코로나19 실내 확산을 파악하기 위한 파격실험부터 국내 개발진이 개발한 확진자 수 예측 AI, 유튜브 뒷광고 금지를 다루었다.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9. 3.	시청률	0.003

### 【총 평】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대체적으로 안전 여행으로 손꼽히는 캠핑이나 글램핑에서의 안전사고를 다룬 '캠핑 열풍, 안전은 빨간불'을 방송했다.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여행문화를 안전사고와 연결시켜 기획한 점이 매우 돋보였다.

코로나19로 야외 외출이 줄어든 시점에서 개인주택 옥상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휴대용 가스 폭발사고를 소개하였다. 사고 당사자가 직접 증언하거나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고의 위험성과 원인을 현실감 있게 짚어내어 시청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었다.

### 【구성 및 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캠핑 인구는 5백만 명, 이에 못지않은 캠핑 안전사고 역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의 집중호우로 인한 캠핑장 안전사고를 점검하고 대비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어 안전의식을 높이는 시간이었다.

'캠핑 열풍, 안전은 빨간불'은 코로나19와 여름 휴가철에 자주 발생하는 캠핑 안전사고, 휴대용 가스버너 폭발 사고, 캠핑 중에 폭우·산사태 같은 자연 재해 사고, 캠핑장 사고 유형과 사고원인, 재난 안전점검 현장, 안전수칙 등을 카테고리별로 구분하여 소개하여 유익하였고, 시의성과 구체성을 잘 반영한 기획이었다.

캠핑 사고를 폭발 사고, 화재 사고, 폭우와 산사태 사고 등 흔히 일어나는 사고 유형으로 정리했고 캠핑장 내 가스 및 전기 시설 등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점검하는 현장을 동행 취재하며 사고의 위험성을 인지시켰다. 이 밖에 캠핑 동호회와 응급구조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 지키미들이 캠핑장을 돌며 주변사항을 체크하고 사고 예방 활동을 하는 모습을 소개했다.

폭우와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캠핑장 사고로 피해를 입어 위험천만한 사례를 소개했다. 캠핑장에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철수준비를 하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캠핑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많은 안전사고는 취사 및 난방 등에 의한 화재사고로 텐트의 재질이 불에 강한 방염소재의 텐트로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의 중독도 발생함에 따라 일산화탄소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의 설치여부와 작동 점검을 체크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또, 전자제품 사용시 과열이나 소음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고 캠핑 시설 등은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므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시설관리자들도 안전 점검 체크 등 안전의식을 높였다. 이 밖에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자세히 전달하였다.